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중생이 부처임을 깨달아야 하화중생이 완성된다.

중생이 웃으면 부처도 웃는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선량한 중생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손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6:125-6:126]

부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미 완전한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존재가 중생으로만 보인다면, 이는 그들을 중생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에 눈먼 이런 오류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중생은 중생의 고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거룩한 부처님들께 화내고, 음욕을 일으키며, 해악을 끼치고, 원망을 가득 품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로 인한 불선업의 대가로 자신과 상대를 원결로 묶어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는 대연민의 마음으로 연극의 방편까지 활용하십니다.

〈묘법연화경〉의 구원실성(久遠實成) 사상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는데, 인류 역사상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이 이미 온전한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서 중생의 역할을 맡아 팔상성도(八相成道)의 이야기로 부처를 이루는 연극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중생 모두가 오래전 이미 성불하셨던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불하는 길의 표준 모델(model)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공간적 세계관에서는 삼천대천세계가 무한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마다 한 분의 부처님이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무한한 중생이 이미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중생은 삼천대천세계를 품고 있는 무한한 법계이며, 그 법계를 책임지고 있는 온전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중생을 부처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진실한 모습을 보시는 부처님의 눈에 중생은 이미 부처님이라는 증거이고, 이 진실을 모르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친히 중생의 몸을 빌려 입고 눈앞에 오셨으니, 이 수고로움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이라는 진실을 믿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내딛어야만 중생의 본 모습을 목격하고, 일체중생 모두를 성불로 이끄는 하화중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지니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간절히 전달하고 싶으신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은혜를 갚는 일석삼조의 길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회향할 세 가지 복전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두 보은(報恩)에 가깝습니다.

세 가지 복전의 첫째는 삼보에 대한 회향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비롯한 삼보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삼보는 중생이었던 우리를 불자로, 보살로 변화시켰습니다. 번뇌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일대사 인연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시작의 의지처가 되어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부모님에 대한 회향입니다. 부모님 역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양육과 교육 그리고 베풀어주신 사랑을 차치하고서라도 위대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간 삶의 희유한 기회를 선물 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셋째는 중생에 대한 회향입니다. 중생은 보살이 일대사인연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중생 없이는 최상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노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생은 최상의 복전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부처님께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6:119]

부처님과 부모, 중생의 은혜를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돕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중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중생은 전생의 어머니이기에 중생을 돕는 것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중생만 도우면 우리는 부처님과 부모의 은혜까지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중생을 위해 여러 번 목숨을 버리시고
고통 속에 들어가신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은
중생이 우리를 해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네.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중생을 위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오만하게 행동하며
중생에게 봉사하지 않는가. **[6:120-6:121]**

세상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열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부처님께서 완성하신 공덕을 나도 성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수행의 씨앗들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도 성불하기 전에는 중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번뇌의 노예였으나, 보리심을 일으켜서 번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 수행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전신은 보리심으로 오직 일체중생을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기뻐하면 기뻐하시고
중생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하시니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중생을 괴롭히는 것은 부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네. **[6:122]**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일대사인연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인데, 이는 중생의 관점입니다. 부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심 깊은 불자로서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싶나요? 웃으시는 얼굴을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중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몸이 불에 타고 있다면
어떤 욕망으로도 마음을 즐겁게 못하나니
우리가 중생을 해치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길이 없다네.
제가 지금까지 중생에게 끼친 해악은
모든 부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모든 곳 계시다는 부처님
실제 생활에선 체감 못해
일대사 이룰 근본이 중생

오늘 제가 이 모든 악행을 참회하오니
부처님이시여, 저를 용서해주소서.
[6:123-6:124]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로 갚아야 합니다. 이 상식이 통해야 분노를 다스리고 보리심 수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름이 있어야만 더 큰 행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아직 중생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종종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은혜를 갚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중생이 괴로우면 부처님께서도 괴롭습니다. 만약 중생이 누군가에게 해악을 입거나, 분노의 불길로 고통스러워한다면 부처님께서도 역시 괴롭습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은 원수가 있어 그 감정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도 중생 뒤에서 그를 보호하는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원수가 싫더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원수를 용서해주세요. 나아가 그에게 선물하고, 도와주고, 기쁘게 해보세요.

만약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사람이 중생을 괴롭힌다면, 이는 부처님의 온몸을 불태우고는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윤회를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삼보와 부모 그리고 중생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한 일석삼조의 방법은 바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웃으면 부모와 부처님이 함께 웃습니다. 이것이 보살 수행의 기준입니다.

중생의 몸을 빌려 입은 부처님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은 〈천수경〉입니다. 이 경전의 마지막에는 '온 우주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간절한 귀의의 내용인 이 문장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든 부처님이 계실 수 있지?'

이 우주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눈앞에도 부처님이 계셔야 합니다. 버스 안에도, 영화관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방 안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모든 중생에게 봉사하리니
그들이 나를 쓰러뜨리거나
짓밟더라도 보복하지 않고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